

# 옛 광주교도소 발견 신원미상 유골, 5·18과제 풀리나

### 국과수서 행불자 가족 322명 혈액과 대조작업 벌일 듯 오늘 감식방법 등 논의...결과는6개월 이상 소요될 듯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40구 유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지면서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22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전남 장성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법무부는 국과수의 정밀감식과 DNA 검사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단체 측이 추천한 전문가 등과 함께 23일 국과수를 찾아 감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감식에 돌입한다.

핵 검사 기법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가능성이 높은 대퇴골이나 치아, 두개골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5·18 행불자 152가족, 322명의 DNA와 대조작업을 벌인다.

광주시는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확보한

5·18 행불자 124명의 가족, 299명의 DNA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공고를 통해 채취한 28명의 가족 37명 중 23명의 DNA도 확보했다. 다만 분석할 양이 많은데다가 유골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정밀감식과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시민 중 82명을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5월 단체 관계자는 “40여구의

유골이라고 했지만 발굴된 유골이 정확하게 맞구인지는 정밀감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 정밀감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솔로몬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 있던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 작업을 하던 중인 지난 19일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

당초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교도소 내 무연분묘의 유골은 111구였다. 하지만 이번 개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 40여구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법무부와 국과수, 경찰, 군 등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반은 지난 20일



지난 16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내에서 '광주솔로몬테마파크' 조성 작업을 위해 무연고자 유골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유골을 분류한 관 모습. 20일 오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이장작업을 벌이는 111구 유골 외 40여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확인해 나갔다.

오후 늦은 시간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에 대한 육안감식을 마쳤다. 육안감식 과정에서 2개의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확인

됐다. 또 유골 중 하나는 크기가 어린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소원의 탑에 메시지 남기는 시민들. 절기상 동지(冬至)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세워진 '2020 조계사 소원의 탑'을 찾은 시민이 새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 욕설·폭력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법원·배심원의 판단은?

### 오늘 국민참여재판 개최

소방관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상을 입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까.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소방관 A씨(34)의 상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전북

대법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했던 A씨는 B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결과는 23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 ‘깜깜무소식’ 전두환 범종, 이번에는 반환될까

### 장성 상무대 무각사 보관...5년째 처리문제 지지부진

5월 단체가 ‘12·12자숙’ 호화만찬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전두환 범종’이 이번에는 반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장성군 상무대 무각사에 보관 중인 전두환 범종(梵鐘) 처리 문제는 5년째 지지부진하다.

1980년 5월 광주를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진 이 범종이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년 10월께 알려졌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종의 반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군은 “종교적으로 미묘한 사안”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광주시와 5월 단체, 육군본부 군종특별교구 등이 참여한 첫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5월 단체 등은 범종이 광주 지역으로 돌아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종특별교구는 “종단(조계종)도 지역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불교의 성물인 범종에 대해 불교계 인사와 신도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후속 논의는 11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범종에 전씨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불자들의 성금으로 만든 성물이기 때문에 선불리 반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씨가 1988년부터 약 2년간 아내와 숨어지냈던 백담사는 전씨의 ‘12·12자숙 호화만찬’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전씨 부부가 사용했던 의류, 침구류, 거울 등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18기념재단이 전씨 잔재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지 4달여 만이다.

이에 대해 한 5월 단체 관계자는 “백담사에 있던 것은 전씨 부부가 사용했던 것이다. 종은 전씨 이름이 새겨져있기는 하지만 신자들의 성금으로 만든 것이라 결론이 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광주 무각사에 있던 ‘전두환 범종’. ‘상무대 호국의 종 /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고 적혀 있다.

것 같다”며 “조계종 측에 대해 범종 제작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전두환 범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른 역사의 상징인 만큼 이를 기록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돌려달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하루 빨리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